

“애들아, 문화전당에서 놀자”



지도를 이용해 아시아 각국 국기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한 어린이가 공에 국기를 그리며 국기공을 만들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서 온 가족이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놀이를 즐기고 예술가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해보는 행사가 펼쳐진다.

문화전당은 오는 11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어린이 문화창작놀이터’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놀이, 창작, 아시아’를 주제로 자율 체험, 작가 워크숍, 거리 공연으로 나뉘어 문화창조원 복합 6관과 야외에서 진행된다.

자율체험(금·토요일 1일 8회)은 아시아 놀이와 지역 예술가를 연계해 제작·개발한 각종 이벤트로 구성됐다. ‘카 케오’는 베트남 전통 대나무다리를 응용했다. 바닥에서 약 10cm 정도 높이의 길게 놓인 대나무 위를 걸으며 균형감과 운동 신경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했다.

23일~11월 21일 매주 금·토 ‘어린이 문화창작놀이터’ 운영

자율 체험·국기도미노·움직이는 집·내이를 꾸미기 등 다채

또 한국의 공놀이와 비슷한 필리핀 ‘체스톤’, 러시아식 볼링인 ‘고로드키’, 싱가포르식 제기차기인 ‘캠펀’ 등이 마련돼 한국 놀이와 비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바닥에 그려진 아시아 지형에 따라 국기가 그려진 도미노를 세우고 쓰러뜨리는 ‘국기도미노’, 유리벽에 아시아 전통 문양을 그리는 ‘유리 그래피티’, 각국 국화와 꽃말을 알아보는 ‘아시아 꽃목걸이 만들기’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작가 워크숍은 어린이책 작가 및 예술가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해보는 시간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문자도(文字圖)로 내이를 꾸미기’, ‘나만의 장서표 만들기’, ‘전자소리공작소’ 등 각종 체험 활동도 열린다.

또한 매주 토요일 야외마당과 문화창조원 로비에서는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동요 등을 아가펠라로 들려주는 ‘에니메이션 아가펠라’(24일), 샌드아트 ‘포스트맨’(31일), 참여놀이극 ‘너-너’(11월 7일), 약기 연주 ‘탈탈라소’(11월 14일), 오브제극 ‘빨간머리박쥐 다다’(11월 21일) 등이 선보인다.

모두 무료이며 거리공연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홈페이지(acc.go.kr)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062-601-40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또한 매주 토요일 야외마당과 문화창조원 로비에서는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동요 등을 아가펠라로 들려주는 ‘에니메이션 아가펠라’(24일), 샌드아트 ‘포스트맨’(31일), 참여놀이극 ‘너-너’(11월 7일), 약기 연주 ‘탈탈라소’(11월 14일), 오브제극 ‘빨간머리박쥐 다다’(11월 21일) 등이 선보인다.

모두 무료이며 거리공연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홈페이지(acc.go.kr)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062-601-40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산에 ‘문학의 길’을 묻다

생오지문예창작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심포지엄

무등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릴 만큼 오랜 세월 광주시민의 애환과 영욕을 품어준 생명의 산이다. 정상부근에 병풍처럼 두르고 선 서석대·입석대는 전체의 경관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의 모티브로, 그림의 소재로, 노래의 배경으로, 남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평범한 덕자형의 산세와 내부의 오묘한 절경이 은근한 조화를 이룬다. 일찍이 최남선은 ‘세계적으로 이렇듯 금강산에 비할 바 없다’고 격찬했다. 수려한 경관 이면에 남도인 특유의 의기와 정신이 빛나기 때문이다.

무등산은 수많은 남도 예술인들에게 영감의 원천지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고경명이 쓴 ‘유서석록’의 소재였고 조선 중기 이후로는 시가 문학을 꽃피운 성산간단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80년대의 무등산은 불의의 역사를 부릅뜨고 지켜보는 증언자의 이미지로 바뀐다.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정의와 의기의 이미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렇듯 무등산은 가도(歌道)와 화도(畫道) 그리고 서도(書道)를 피워낸 예술의 분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무등산을 문학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제14회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은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무등산 문학’ 심포지엄을 연다. 23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4층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남대 김신중 교수의 ‘무등산권의 고전문학’, 한려대 전홍남 교수의 ‘무등산권 현대문학’ 주제발표가 있다.

사실 호남의 명산 무등산은 호남정신 의 모태공간으로 그동안 문인들이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생오지문예창작촌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무등산권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는 문순태 소설가가 ‘무등산이 지니는 정신사적 가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김신중 교수는 무등산권의 시가문학 고경명의 ‘유서석록’ 등 무등산을 소재로 창작된 고전문학을 검토한다. 전홍남 교수는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기억의 서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시민들과 연구자들,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질의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무등산에 대한 문학적·학술적 체계화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문의 061-381-2405. /박성철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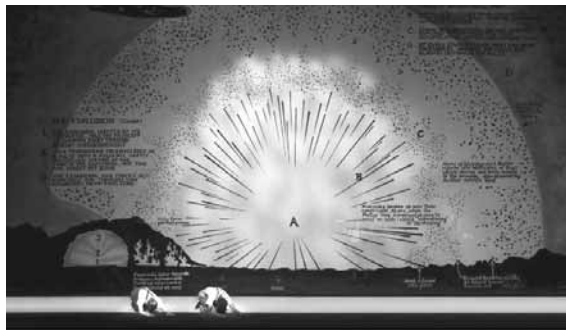


무등산의 시가문학이 꽃피운 식영정.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전당 예술극장 ‘해변의 아인슈타인’ 공연

23~25일, 4시간40분 실험 오페라

NYT 선정 ‘20세기 최고의 작품’



‘해변의 아인슈타인’

9월 개관 페스티벌을 마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2015~2016 시즌 프로그램 ‘아워 마스터(Our Master)’를 시작한다. ‘아워 마스터’는 연극, 음악, 무용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전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기획으로 이번 시즌은 벨기에의 유명 연출감독인 프리 라이젠이 담당했다.

관객에게 소개되는 첫 번째 작품은 공연계를 변혁시킨 실험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23일 오후 6시 30분, 24일 오후 4시, 25일 오후 2시)이다.

논문이나 동영상 등으로만 작품을 접했던 한국 공연계 관계자들이 예술극장 프로그램 오픈 당시 가장 기대

했던 공연이다. 일반 관객들에게는 공연 시간이 4시간 40분에 이르는 대작인데다 특별한 줄거리 없이 이미지들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만만찮은 작품이기도 하다.

1976년 초연된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줄거리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 당시 공연예술계에 통용되던 모든 관습과 규칙을 뛰어넘은 역작으로 평가받았다. 뉴욕타임스는 1999년 이 공연을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세계적인 연출가 로버트 윌슨과 미니멀리즘 작곡가 필립 글래스가 함께 만든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을 소재로 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줄거리는 없다. 대신 안무와 음악이 ‘수(數)’의 체계에 따라 정교하게 진행된다.

무대에서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의상과 대소도구를 활용, 아인슈타인의 과거(어린 시절), 현재, 미래(우주선)를 보여주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공연 중 조용히 입·퇴장이 가능하다.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양사의 ‘추야몽’... 헤민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23~25일, 단풍음악회도



깊어가는 가을, 애기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장성 백양사에서 ‘2015 백양사의 추야몽(秋夜夢)’ 행사가 23일부터 25일 까지 개최된다.

첫날인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우리 시대 대표적인 ‘힐링 멘토’로 불리는 헤민스님(사신)의 ‘마음치유 콘서트’가 열린다.

또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는 백양사 대웅전 앞에서 백양사 전 포교국장이자 광주불교방송에서 ‘수안스님의 행복한 가을’을 진행하고 있는 수안스님의 ‘음악

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어 24일에는 국악한마당과 노래사랑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1시에는 한국 사찰음식 대표 전문가로 평가 받는 천진암 주지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및 체험, 오후 2시 백양사 주무대에서는 김종환, 현진우, 바다세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백양사 단풍힐링음악회가 열린다. 문의 061-392-750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법원경매 낙찰대리,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추천물건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9057	근린시설
	2014타경 29078	숙박시설
	2014타경 30504	근린주택
	2014타경 30504	골프장
	2015타경2247	근린시설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거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경락잔금 대출, 경매취하 자금 대출 담당자 김기남 팀장 010-4444-7424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